

‘플레이오프 도전’ 광주도시공사, 새 시즌 닷 올린다

오늘 경남개발공사와 개막전
지난 시즌 3전 전패 설욕 도전
초반 분위기가 시즌 전체 좌우
“약체 평가, 젊은 패기로 반전”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2일 오후 6시 충북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이 지난달 대구 전지훈련에서 팀워크를 끌어올리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통합 리그로 개편 두 시즌 째를 맞은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가 1일 서울시청과 SK슈가글라이더즈의 개막전으로 막을 올렸다. 지난 시즌 7위에 머무르며 자존심을 구긴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새 시즌 설욕에 나선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2일 오후 6시 충북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 시즌 첫 경기를 갖는다.

2020-2021시즌부터 2022-2023시즌까지 3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며 여자부 다크호스로 떠오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6승 1무 14패(승점 13)로 7위에 머물렀다.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노선인 4위 삼척시청(10승 1무 10패·승점 21)와 격차는 승점 8점, 4승이었다.

광주도시공사로서는 뼈아픈 시즌이었다. 프랜차이즈 스타로 팀의 기동 역할을 맡았던 강경민이 자유 계약(FA) 자격을

얻어 SK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하며 전력 누수가 생긴 공백이 컸다.

또 송해수와 원선필, 이아현, 정현희 등이 줄부상에 신음해 정상적인 전력을 가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21경기에서 476득점(평균 22.7득점)으로 8개 구단 중 최소 득점에 그쳤다.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시즌 16승 2무 3패(승점 34)로 정규리그 준우승을 거두며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비록 플레이오프에서 삼척시청에 업셋을 허용하며 챔피언결정전 진출이 좌절

됐으나 만년 하위권으로 분류되던 경남개발공사로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특히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경남개발공사에 3전 전패를 당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다. 세 차례 맞대결에서 각각 20-28, 18-29, 22-25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고배를 마셨다.

현장 평가는 지난 시즌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경진 SK슈가글라이더즈 감독과 정연호 서울시청 감독, 이계정 삼척시청 감독, 문필희 인천시청 감독, 이재서 대구시청 감독이 경남개발공사를 플레이

오프 후보로 꼽았고 광주도시공사를 언급한 지도자는 전무했다.

맥스포츠의 조은희 해설위원과 이상은 해설위원, 황도업 해설위원, 김은아 해설위원, 박중규 해설위원 역시 모두 경남개발공사를 상위권 후보로 평가했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광주도시공사가 복병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상은 해설위원은 “부상에서 복귀하는 송해수의 활약에 따라 상위권 도약을 노려볼 수 있다”고 평가했고, 김은아 해설위원도 “김지현과 정현희의 높은 수비에 송

해수의 복귀로 공격력이 강해져 분위기를 타면 무서운 팀”이라고 언급했다. 박중규 해설위원 역시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돼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라고 말했다.

오세일 감독은 현장 평가를 시즌 초반부터 뒤집어보겠다는 각오다. 특히 개막전 승패가 초반 분위기를 좌우하고, 이는 시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약체같은 경기력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오 감독은 “대구 전지훈련에서 연습경기를 소화하며 호흡을 끌어올렸다. 연지현, 이민지 선수도 첫 공식 경기를 대비해 손발을 잘 맞췄다”며 “선수단 전원이 건강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적절히 출전 시간을 나누며 체력을 안배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화로 개막전을 잘 치러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우리를 4강 후보로 보지 않고 있다. 경남개발공사가 정규리그 준우승과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차지했기에 열세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젊은 팀이기에 초반에 순항하면 상승 기류를 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모든 선수들이 이변을 일으켜보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만큼 개막전 승리를 가져와보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 서구청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정지윤 영입 ‘동료 추모’ KIA타이거즈, 제주항공 참사 애도

힘 좋고, 막고 찌르는 기술 장점

광주 서구청 여자 에페 펜싱팀이 전 국가대표 정지윤(26·사진)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청장실에서 펜싱팀 신규 선수로 영입한 전 국가대표 정지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정지윤은 한국체대 졸업 후 경기도청에 입단했으며, 2022년 국가대표 선발전 2위로 2023년 여자 에페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청 유니폼을 입고 5년간 뒀던 정지윤은 기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새 팀을 물색했고, 팀 분위기가 좋은 광주 서구청에 입단하게 됐다.



정지윤은 힘이 좋아 상대선수의 공격을 막고 찌르는 빠르다 기술이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 서구청 여자 펜싱팀은 국가대표 강영미와 전 국가대표 최은숙, 김수빈 등 기존 선수에 전 국가대표 정지윤의 영입으로 한층 더 강화된 전력으로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 대회 상위 입상을 노리게 됐다.

최동한 기자

임직원·선수단 합동 분향소 참배 SNS 통해서도 추모 물결 이어져

프로야구 KIA타이거즈 선수단과 임직원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함께했다.

KIA 선수단과 임직원 일동은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과 무안 현경면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앞서 KIA는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깊은 위

로와 애도를 표한다’며 추모했다.

KIA는 이번 참사로 동료 직원과 일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었다. 선수단과 임직원 모두 상주의 심정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애도에 동참했고, 참배 일정 역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을 만나는 자리에도 어수선한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 동료 직원과 인연이 깊은 극소수만 참석했다.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 투수 양현종은 무안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임시 숙소를 찾아 유족을 직접 위로했다.

SNS에서도 인연을 맺었던 선수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선빈은 “십여 년 넘게 함께한 나의 든직한 동료이자 언젠

나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형, 하늘에서 형수랑 아들이랑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 다음 생애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 못다 한 약속 꼭 지키자”고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장현식도 “타이거즈와 광주의 추억이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다고 야구장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가슴이 멍멍하다”며 “하늘에서 부디 가족과 함께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한편 KIA타이거즈 마케팅팀 A씨는 시즌을 마치고 결혼 후 첫 가족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세 살배기 아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한규빈 기자

화순컨트리클럽 회원 모집

- 코스규모 : 27홀, 108파(전장 9,569미터)
- 모집인원 : 2025년 특별회원 00구좌
- 모집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입 회 금 : 정회원(특별) 1구좌 5억원
- 구비서류 : 당사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
- 수납은행 : 광주은행 736-107-305029
예금주 : (주)화순컨트리클럽

※ 입회 관련 참고 사항

- 정회원권 소지자 우선
- 골프장 내장횟수 많은 내장객 우선
- 입회 조건 부적격자 제외

(주)화순컨트리클럽
문의 061) 370-4153

광고문의

팩스 : 062) 519-0709
전화 : 062) 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삼거리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

010-5679-0990, 062)714-2846

부동산매매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17 6968㎡(2108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892-4 550㎡(166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20-1 3973㎡(1202평)
= 11491㎡(3476평) 9억원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 2386㎡(722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3 44㎡(13평)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창 919-14 1072㎡(324평)
= 3502㎡(1059평) 3억원

전체합계 14,993㎡(4535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에서 진출입가능

010-9119-4981

분양계약서 분실공고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00번지 일원 위파크 일곡 공원 110동 2002호

계약자 : 하태연, 안선미
연락처 : 010-6224-7890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편선/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선시설/양식장/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